

은행 대출금리 '도미노 인상'에 서민 한숨 깊어진다

KB, 최대 0.2%P 인상...50년 만기 주담대 만34세 이하 제한도
우리은행, 13일부터 최대 0.2%P ↑...신한, 대출금리인상 검토 중
5대 은행 대출 잔액 5개월 연속 증가...서민 원금상환 부담 높아져

"분양가도 부담인데 은행권 대출금리까지 오른 다니 걱정이네요..."
직장인 김모(32)씨는 올해 3월 주택청약을 통해 84㎡ 규모 아파트를 분양가 5억2000만원 상당에 분양을 받았다.
김씨는 여섯 차례에 걸쳐 총 3억1000여만원을 대출받기로 했는데, 예상되는 이자만 2500여만원에 달한다. 최근 은행권에서 일제히 대출금리를 올리기로 하면서 김씨의 걱정은 더 깊어지고 있다.

김씨는 "현재 금리는 4.49%인데 1년마다 갱신하기로 약정했다. 최근 기준금리가 되는 COFIX(코픽스) 금리가 올라 다음 회차 대출에는 이자가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가 5%까지 오르면 이자는 300만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며 "분양가도 비싸 고민이 깊었지만 내 집 마련 기회라고 생각해 과감히 주택 청약을 신청했는데, 요즘 들어 후회가 되기도 한다"고 하소연했다.
주요 시중은행이 대출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서민

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가계대출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수요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은행권이 금리 인상이 나서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11일 영업점 등에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와 신잔액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 신규)를 각 0.1%포인트, 0.2%포인트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신잔액코픽스 기준 전세대출 변동금리(6개월 신규) 역시 0.2%포인트 높아졌다.
KB국민은행은 또 13일부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도 '만 34세 이하'에만 내줄 예정이다.
우리은행도 1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 올리고,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3%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 역시 내부적으로 현재 대출금리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르면 이번 주 중 인상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권에서는 시중은행들의 이런 금리 인상과 초장기 대출 상품 연령제한 조치 등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수요 억제 요청에 대한 호응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 시중 은행 관계자는 "KB나 우리, 신한 외 은행 중에서도 금리 인상을 준비하는 곳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른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리는 동안 금리를 같이 인상하지 않고 혼자 가만히 있으면 대출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자 금융 당국과 5대 은행 부장단은 매주 금요일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수요 억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9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82조3294억원으로 8월 말(680조8120억원)보다 1조5174억원 늘었다. 5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2조8591억원(514조9997억원-517조8588억원) 불었는데, 이 증가 폭은 2021년 10월(3조7989억원) 이후 가장 컸다.
은행권의 이 같은 금리인상 기조에 서민들은 원리금 상환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은행권 관계자는 "오는 16일 발표되는 코픽스 금리는 지난달 보다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준금리가 되는 코픽스 금리에 가산금리까지 오르고 있어 서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 고동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LH광주전남 본부 'LH순천스테이' 복지·문화공간 역할 톡톡

다자녀·국가유공자세대
여행·임대주택 체험기회



'LH순천스테이'에 3대가 함께 참여한 국가유공자 가족이 LH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H 제공>

LH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재경)는 새로운 문화복지 사업 'LH순천스테이'를 선보였다고 12일 밝혔다.
'LH 순천스테이'는 LH임대주택 입주주민을 대상으로 순천 소재 공공임대주택 공기를 활용, 2박 3일간 머무를 체험숙소와 지역상품권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문화 취약계층에게 여행과 다양한 임대주택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LH만의 복지서비스다.
LH광주전남지역본부는 LH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다자녀, 국가유공자 세대를 대상으로 체험하우스 신청자를 모집했다.
이후 선정된 40가구(총 177명)를 대상으로 8월~10월 중 희망하는 기간에 체험하우스 지원을 시작했다. 선정된 세대에는 순천 체험하우스(전용 59㎡) 2박 3일 이용권,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 입장권, 순천사랑 상품권(20만원 상당)을 제공했다.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125명, 28세대가 체험을 완료했으며, 오는 10월말까지 총 12가구(52명)가 추가로 체험할 예정이다.

LH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국가유공자나 다자녀 가구 중 생업과 경제적 여건상 여가활동이 제한적인 경우가 있다"면서

"이번 지원사업이 이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 아파트값 지난달 상승 전환...4주 연속 오름세

10월 둘째주 전주 대비 0.03% ↑

이번 주에도 전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 광주 역시 지난달 1년 3개월 만에 집값이 상승 전환한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전남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는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이 12일 발표한 '10월 둘째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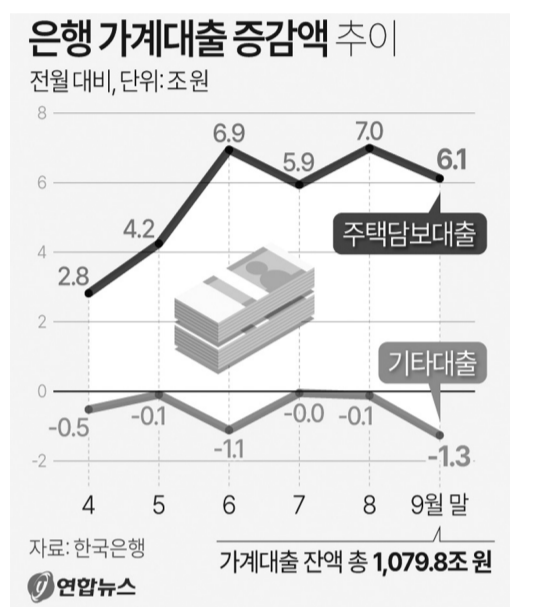
난 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6%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13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상승폭은 전주(0.08%)보다 소폭 줄었다. 추석 연휴 여파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때론 인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광주는 전주 대비 0.03% 상승했다.

광주는 9월 셋째주(18일 기준) 전주 대비 0.02% 오르면서 지난해 7월 첫째주 이후 63주 만에 상승 전환한 이후 9월 넷째주(25일 기준)와 10월 첫째주(2일 기준) 각각 0.01% 오르는 등 4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전남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달 둘째주 전남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2% 하락, 올해 들어 누적 4.07%가 떨어졌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9월 은행 주담대 6.1조 ↑...가계대출 6개월 연속 증가

전체 가계대출 4.9조 ↑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6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액이 3년 6개월 만에 7조원에 이르는 8월보다 줄었지만,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이달 이사철과 연휴 효과 소멸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 폭이 다시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79조8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9000억원 많았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대체로 감소세를 유지했지만, 4월(+2조3000억원) 반등한 뒤 6개월 연속 불어나는 추세다.
특히 9월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33조9000억원)이 6조1000억원이나 늘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달 2조4000억원 불었다.
6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8월(+6조1000억원)보다 3조7000억원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이 5조7000억원 늘어난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3조3000억원 급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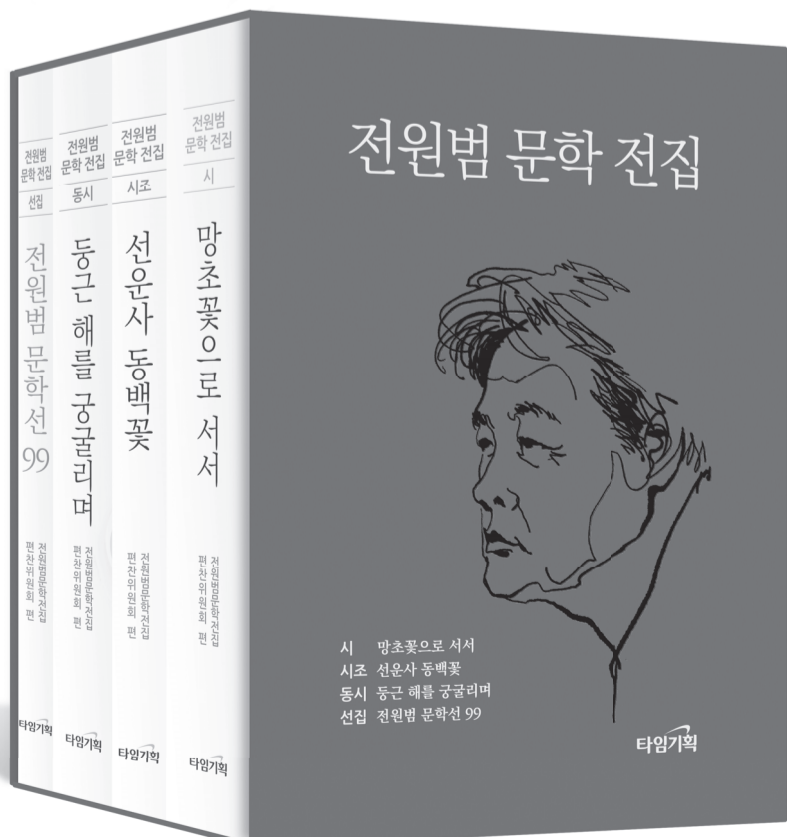
연권별로는 한 달 새 은행권 가계대출이 4조9000억원 증가하는 동안 제2금융권에서는 2조5000억원 감소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월 중 가계대출 증가 폭이 줄었지만 가계대출 규모는 여전히 크다"며 "10월에는 가을철 이사수요, 9월 신용대출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 폭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중선 국민연금 광주본부장, 마약퇴치 캠페인 동참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는 12일 마약 퇴치를 위한 'NO EXIT' 캠페인에 윤중선(사진) 본부장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 하에 범국민 챌린지로 진행되고 있다.
윤재성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으로부터 챌린지 주자로 지명을 받은 윤중선 본부장은 "마약은 삶을 파괴하게 만들기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 내는 숭고한 정신과 삶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깊은 서정 속에서 펼쳐 보이는 전원범의 시는 시의 미적 형식을 넘어선 자리에서 인간과 삶과 자연의 아우라를 정리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오윤호(문학평론가)

전원범의 시조가 보여주는 주된 정조는 그리움이며, 쓸쓸하면서 맑은 정신 지향은 번잡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준다. -염창권(시인, 광주교대 교수)

전원범 동시 세계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해와 하늘과 꽃'이다. 그는 이를 통해 밝고 맑고 아름다운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다. -이준관(시인, 아동문학가)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동근 해를 궁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선집 전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

